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일정한 질서 가운데 남녀는 사랑의 연합에 근거한 혼인생활 유지해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창 1:27)

제4장 하나님의 인간 창조

제 4장 2항

하나님은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신 후에 이성적이며 불멸하는 영혼을 가진 사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이들을 지으셨으며,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셨으며, 이들에게 그것을 성취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의지의 자유로움에 따라 행하도록 허용이 되었으나, 자유의지는 변화를 받기 마련이므로, 죄를 범할 가능성 아래에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심령 안에 기록된 율법에 덧붙여,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한,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가운데 행복하였으며 피조물들을 다스렸습니다.

기독교강요 제3권 제4장 2항에서 교훈하는 것은 이러하다.

- ▶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
- ▶ 사람은 이성적이며 불멸하는 영혼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가 되었으며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한 자로 지음 받은 특별한 존재이다.
- ▶ 사람은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 ▶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피조물을 다스리는 행복을 누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지킬 때에야 이루어지는 일이다.
- ▶ 사람이 거룩하며 복된 존재로 지음을 받았으나 죄를 범한 것은 그의 자유의지가 변했기 때문이다.

1. 남자와 여자로 창조 된 인간

신앙고백이 본 항에서 교훈하는 첫 번째 내용은 남자와 여자의 창조와 관련한 사실이다. 하나님은 먼저 한 사람의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 후에 그 남자에게서 몸의 일부를 취하여 한 여자를 만드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창 2:22)

이 사실은 남자와 여자가 사람으로서 본질상 동일한 존재임을 말한다. 남자와 여자는 본질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 없이 동일하다. 따라서 남자와 여자는 생물학적인 성의 차이로 인하여 어떠한 인격적 차별을 받을 이유가 없으며 완전히 평등하다.

사람은 사명을 받은 존재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주신 명령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 1:28)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을 하셨다. 남자와 여자는 생육하며 번성하여야 할 사명이 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주실 때에 아주 특별한 명령을 함께 주셨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창조하신 것과 비교할 때 뚜렷이 나타났다.

하나님이 동물들을 창조하실 때에는 암수 여러 쌍을 만드셨지만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단지 남자와 여자를 각각 한 명씩만 창조하셨다. 이 사실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준다. 그것은 남자와 여자는 사람으로서 본질이 남자와 여자가 완전히 동일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 가운데 연합하여 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명령을 받고 있음을 뜻한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지로다.”(창 2:23,24)

남자와 여자는 동일한 본질을 지닌 평등한 존재이면서 성적으로는 서로 구별이 되는 다른 존재이지만 혼인을 통해 한 몸을 이루는 사랑의 연합을 이루며 살아야 하는 명령을 받고 있다.

하나님은 또한 일정한 질서 가운데 이러한 사랑의 연합에 근거한 혼인생활을 이루어 가도록 교훈을 하셨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창 2:20,21) 여자는 남자에게 있어서 돕는 배필로 창조함을 받았다. 혼인 생활에 있어서 남자인 남편은 여자인 아내에 대하여 머리가 되며 아내는 남편에 대하여 돕는 배필로서 질서를 따라 살아야 할 것을 교훈하신 것이다.

2.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 된 인간

“사람은 하나님의 교훈에 순종함으로써 참된 행복 누릴 수 있어”

2항에서 신앙고백이 교훈하는 두 번째 중요한 요점은 사람이 하나님

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이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본질(本質)을 반영하고 있음을 뜻한다. 물론 이 말은 유한한 사람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본질을 직접적으로 그대로 드러내거나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함께 신성을 나누고 있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이 말은 단지 사람이 유비적(類比的)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다는 사실을 교훈할 따름이다. 그러므로 신앙고백이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하여 교훈하는 바는 이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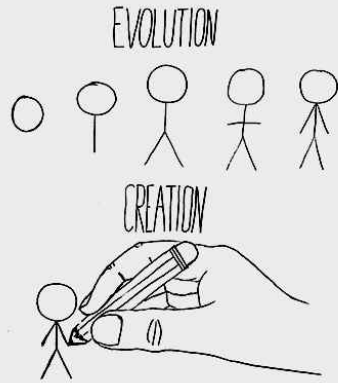
사람은 단지 육체만 가진 자가 아니라 영혼을 가진 자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며 순수한 영이시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의 외적인 몸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과 관련하여 나타난다. 사람의 영혼은 영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서 존재하게 되었다. 영혼은 스스로 존재하거나 하나님의 영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다. 영혼은 비록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물질이 아닌 영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실존하는 것임을 유의하여야 한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불멸이시다. 이에 따라서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불멸의 성질을 갖고 있다. 영혼은 육체가 사멸하듯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신앙고백서는 영혼을 육체의 기능으로 보고 영혼의 사멸을 주장하는 유물론적인 무신론자들의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밝힌다. 여기서 신앙고백이 영혼의 불멸성을 말할 때 그것은 영혼이 스스로 영원히 존재한다거나 하나님도 그것을 멸하실 수가 없다는 것을 뜻하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며 하나님이 멸하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고백이 영혼의 불멸성을 말하는 것은 영혼이 물질처럼 썩어 없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교훈하기 위함이다. 제 일 원인이신 하나님과의 관련하여 불멸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 이 원인으로 썩어 없어지지 않는 내적 성질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마 10:28)

Evolution?
Or Creation?

Somebody
drew it,
either way.



사람이 몸을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을 죽일 수 없다는 말씀은 그 영혼이 제 이 원인과 관련하여 몸과는 달리 사멸되지 않는 내적 성질을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는 말씀처럼 영혼은 제 일 원인이신 하나님과 관련하여서는 사멸될 수 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성경의 교훈(마 25:34,31, 히 6:2)은 불멸성을 지닌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영생 또는 영벌에 처하게 될 것임을 뜻한다.

아울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혼을 가진 특별한 존재로 지음을 받은 자로서 영혼의 기능적 특성에 따라:

- 지성적 능력으로서의 이성과 자연적인 정서,
- 자유롭게 자신의 마음을 결정하는 의지와 도덕성 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다른 동물들에게는 없는 사람에게만 특별한 것이다. 이러한 특성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동물들과 구분이 되는 특별한 지위를 누리게 한다.

하나님의 형상은 한편으로 이러한 영혼의 기능적 특성을 말한다. 하나님의 형상의 이러한 측면들은 비록 사람이 죄를 범하여 타락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된 후에라도 상실되지 않은 채 여전히 유지된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창 9:6; 참조 약 3:9)

다른 한편 하나님의 형상은 이처럼 죄를 범한 이후에도 상실이 되지 않는 영혼의 기능들과는 달리 상실되는 영혼의 특성들을 가리키기도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교훈에 완전히 순종하는 의지의 올바른 의와, 참된 지식 그리고 거룩함 등의 특성들이다. 이러한 특성들은 최초로 창조된 사람의 영혼에 부여된 ‘원초적 의’를 구성한다. 이러한 ‘원초적 의’의 상태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창 1:31)고 하신 말씀이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잠 7:29)는 말씀 가운데 암시가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원초적 의’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은 타락한 이후에는 상실이 되며 중생하여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은총에 의하여 점차 부분적으로 새롭게 회복된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골 3:10)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엡 4:23,24)

하나님이 사람을 이처럼 자신의 형상을 따라 특별한 존엄을 지닌 존재로 창조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훈에 순종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인간 자신 또한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의 창조와 관련하여 신앙고백은 타락함으로 상실하였던 ‘원초적 의’를 회복하는 구원의 복을 더욱더 충만히 누리기를 사모하며 힘써야 할 것을 교훈한다.

3. 사람은 임의로 살아가는 자율적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 외에 땅에 속한 그 어떤 것도 사람에게 행복 주지 않아”

사람은 임의로 살아가는 자율적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바로 사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주심으로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규범을 주셨다. 신앙고백서는 이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금하신 것에 덧붙여 하나님이 사람들의 심령 안에 율법을 기록하여 놓으셨음을 고백한다. 이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관련한 금지 명령의 의미는 사람이 지켜야 하는 규범을 대표적으로 상징함을 뜻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갖는 궁금증은:

- ▶ 그 나무가 어떠한 나무이며,
- ▶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이름이 뜻하는 바는 무엇인지,
- ▶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주신 까닭은 무엇인지 등과 관련한 것들이다.

(1)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없다.

우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다. 성경이 이에 대해 아무런 실마리를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사과나무인 듯이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는 그린 그림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어떤 이들은 이에 대한 근거를 아가서 8:5 "...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에서 찾기도 하지만 이것은 올바른 주석의 결과가 전혀 아니다. 흥미롭게도 라틴어로 '악' 또는 '불행'을 의미하는 단어와 '사과'나 '실과'를 뜻하는 단어가 모두 말룸(malum)이라는 동음 이어(異語)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림이 널리 퍼졌을 것으로 추측이 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그 이름이 나무 자체가 선악을 구별하는 나무라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며 혹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그 자체로 선악을 구별하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어떤 이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고 말한 마귀의 말(창 3:5)을 근거로 열매 자체에 이러한 능력이 있다고 말하지만 이는 마귀의 거짓된 미혹을 그대로 진실로 인정하는 잘못된 해석이다. 올바른 해석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이름을 '결과적'으로 그리고 '성례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 ▶ '결과적'이라는 말은 아담과 하와가 실제로 그 열매를 먹은 후에 순종의 선과 불순종의 악이 어떻게 다른지를 실제로 경험하게 됨으로

인하여 당하게 될 결과 즉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얼마나 많은 선을 잃어버렸으며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빠지게 되었는지를 알게 될 것임을 미리 말하여 준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 ▶ '성례전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금지 명령으로 인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선악의 순종과 불순종을 시험하는 상징을 갖는다는 점을 반영한다. 만일 금지 명령을 지켰더라면 하나님께 온전한 사랑의 순종을 드러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는 악을 드러내고 말았음을 볼 때 상징성을 갖는 성례전적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다.

17세기 개혁주의 신학자 튜레틴(Francis Turretin)에 따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결과적'이며 '성례전적'이라는 사실은 하나님이 이러한 금지명령을 주신 이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교훈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 ▶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도록 한 금지 명령은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사람은 그의 주권 아래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교훈한다.
- ▶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는 외적인 상징을 두심으로써 불순종이 범한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준다.
- ▶ 하나님의 금지명령은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임을 말한다.
- ▶ 비록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실제로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더라도 그것처럼 땅에 속한 것이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님을 교훈한다.
- ▶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일이 최고의 행복임을 알고 다른 모든 일에 앞서 하나님을 섬기기에 힘을 다하여야 할 것임을 교훈한다.

(2) 사람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 때 최고로 행복하다.

이러한 교훈들은 바로 신앙고백의 본 항목에서 교훈하는 네 번째

내용을 확인하여 준다. 곧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며 피조물을 다스리는 행복을 누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지킬 때에라야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이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에덴동산은 육체의 삶에 최고의 평안을 주는 곳이며, 지극히 기쁜 즐거움으로 가득 찬 곳이며, 번민과 고통은 존재하지 않는 곳이었다. 어떤 죄책도 없으며, 수치스러운 어떤 것, 두려워 할 어떤 것도 없으며, 어떤 분노나 영혼을 괴롭힐 어떤 것도 없는 곳이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최초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에덴동산은 지상의 낙원(樂園, 기쁨과 행복의 동산)이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관련한 금지 명령과 관련한 교훈을 통해서 신앙고백서는 아담과 하와가 누리는 참된 행복이 이러한 외적인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데에 있음을 고백한다.

(3) 인간의 타락은 그의 자유의지 변화 때문이었다.

“아담과 하와의 자유로운 의지는 선으로 나가는 성향 있어”

신앙고백서가 본 항목을 통해서 교훈하는 마지막 다섯 번째 내용은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된 일은 그가 본래 죄를 짓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자유의지가 변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다.

사람은 본래 거룩하며 복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따라서 타락한 이후에 부패한 성품으로 인하여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비참한 상태로 존재하는 사람들과 달리 최초의 아담과 하와에게는 어떤 죄의 억압이나 죄의 경향이 전혀 존재하거나 활동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유한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변화를 겪는 성질에서 자유로운 존재들이 아니었다. 불변성(不變性)은 오직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며 가변성(可變性)은 피조물의 성질이기 때문이다. 아담은 그가 지음을 받은 최초의 거룩함과 의의 상태에 비추어 볼 때 분명히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로서 죄로부터의 자유를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하는 일과 죄를 범하지 않는 일 사이에 어느 쪽이라도 선택할 수 있는 독립적인 상태로 창조된 것이 아님을 뜻한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실 만큼 거룩하고 의롭게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자유로운 의지는 선으로 나가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설명은 개혁파 이외의 학파들이 말하는 바와 달리 아담과 하와가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중립의 자유를 가진 상태로 창조를 받았고, 불순종을 선택하는 자유의지로 인하여 타락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반대를 표한다.

개혁파 설명에 따르면 아담과 하와는 선과 악으로 나가는 경향성이 동일한 중립의 자유의 상태로 창조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 만일 중립적이라면 한편으로는 거룩하고 의로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로 악으로 이끌려 행동하는 것이 동시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하므로 불합리하다. 이들은 선으로 나가는 경향성을 따라 창조함을 받은 자들로서 순전한 자들이며 거룩하며 의로운 자들이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하여 타락을 하게 되는 것일까?

개혁파의 설명에 따르면 그것은 인간의 가변성 때문이다. 아담과 하와가 선 못지않게 악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그들이 가변성을 지닌 존재로 지음을 받았음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결과이다. 즉 아담과 하와가 비록 순전한 상태로 창조함을 받아 선의 성향을 가진 자일 뿐 결코 악으로 이끌리는 성향을 부여받은 자들이 아니지만 이들이 가변성에서 자유로운 자들이 아님으로 인하여 결국 악으로 이끌리는 경향도 갖는 변화를 겪게 된 것이다.

이 변화는 한편으로는 선을 다른 한편으로는 악을 향해 동시적으로 나가는 독립적인 상태로의 변화는 아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창조 때의 상태로 선을 향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변화를 겪은 후에 악을 향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는 순차적이며 서로 구분이 되는 변화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는 타락한 이후에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로 전락이 되어버리게 된 것이다.^(*) 글쓴 이 / 김병훈 교수(합신조직신학) < 다음에 계속 >